

“정부, 주거 기본원리 존중… 이념 차원 접근땐 시장 왜곡”

尹 대통령, 국토·환경부 업무보고
“주민들 교통편의 체감 할 수 있게 GTX 노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원전, 탄소중립 기여하는 에너지 실행력 있는 정책 추진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및 환경 문제와 관련해 “규제부처가 아닌 민생부처라고 생각하고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닌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2023년 국토교통·환경 정책방향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두 부처는 모두 국민의 일상, 국민의 삶의 질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처”라며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을 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가장 국민이 관심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갖고 있는 분야가 주거 문제와 교통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달라”며 “주거에 있어서 주택의 수요공급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정부는 집값이 늘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관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이것을 어떤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요 측과 공

급 측의 양쪽이 규제에 묶여 시장에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다”며 “가격이 치솟고, 임대기도 올라감으로써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진단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해 이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려고 했다”며 “이게 또 너무 속도가 빠르면 국민이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를 조절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연착륙이 아

나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빌라왕 등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많은 취약계층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해회복, 법률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이런 분야에서 조금 더 미진함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현재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및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대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GTX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며 GTX-A 노선은 내년 초 수서-동탄 구간의 우선 개통을 비롯해 B 노선은 내년 초 착공 시작, C 노선은 연내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GTX-D, E, F 노선도 빠르게 예타(예비타당성)에 들어가 임기 내에 예타가 통과돼 추진할 수 있

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규제 문제가 아닌 환경 규제를 설정한 공공목표 정책을 고도의 기술로 풀어낼 수 있고, 규제는 풀되 기술로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시장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 당시 작은 개천까지 포함해 모든 하천에 대한 AI(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수계 관리 하도록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 수계 관리와 연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하의 물 저장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원전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며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산자부와 협력을 잘 해 주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달라.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라”고 지시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연초 회사채 발행 ‘붐물’… 물량부담 우려도

이달 KT·이마트 등 8곳서 추진
“금리인상 속도조절론 등 금리 하락 스프레드 축소, 저가매수세 유입”

기업들이 연초에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가 나타나는 ‘연초효과’를 기대하며 회사채 발행 채비에 나섰다. 다만,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자금 경색으로 시장 불안이 여전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에만 KT(AAA·1500억원), 이마트(AA·2000억원), 포스코(AA+·3500억원), 연합자산관리(AA·700억원), LG유플러스(AA·2000억원), CJ ENM(AA-·1700억원), 롯데제과(AA·1500억원), LG화학(AA+·4000억원) 등이 수천억원 규모의 공모회사채 발행을 추진 중이다. 해당 우량 기업들은 발행량을 최대 2배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KT와 이마트는 새해 회사채 수요에 즉 첫번째 주자로 등장했다. 두 회사 모두 오는 4일 수요예측을 앞두고 있다. KT는 총 1500억원 규모의 2·3·5년물을, 이마트는 총 2000억원 규모의 2·3년

〈1월 국내 주요기업 회사채 발행계획〉

| 기업 | 신용등급 | 목표금액 |
|--------|------|--------|
| KT | AAA | 1500억원 |
| 이마트 | AA | 2000억원 |
| 포스코 | AA+ | 3500억원 |
| 연합자산관리 | AA | 700억원 |
| LG유플러스 | AA | 2000억원 |
| CJ ENM | AA- | 1700억원 |
| 롯데제과 | AA | 1500억원 |
| LG화학 | AA+ | 4000억원 |

물 발행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우량물 중심의 강세를 전망했다. 지난해 채안펀드 가동에 연초 효과가 겹치며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는 180bp(1bp=0.01%p)에서 150bp 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신용 스프레드가 줄어들면 기업의 자금조달 난도가 낮아져 기관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 설명이다.

이화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크레딧 시장이 냉각되면서 주요 발행이 대부분 취소됐고, 이에 따라 발행

대기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며 “금리인상 속도 조절론과 시중 금리의 하락, 초우량 등급 스프레드의 가파른 축소세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말과 12월 초에 실시한 SK와 SK텔레콤의 회사채 수요예측이 흥행에 성공한 점과 투자심리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우량 대기업도 발행물량을 원활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급 측면에서도 연초 기관들의 자금 집행 재개로 수요 기반이 확충되는 가운데 은행채 등의 물량 조절이 예상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안 요인도 여전하다. 연초에 만기 도래를 앞둔 회사채 차환 수요가 많고, 한전재 등 공사채의 발행 규모가 다시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일반 회사채 규모는 총 59조1000억원이다. 이 중 1분기 만기 도래 규모는 14조7000억원에 달한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가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경제·금융계 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경제 위기극복 위해 금융의 역할 절실”

은행연합회 ‘범금융 신년인사회’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금융회사 대표, 정·관계 인사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범금융 신년 인사회’가 개최됐다.

은행연합회는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함께 2023년 범금융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올해 범금융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

로 인해 지난 2년간 진행하지 못했던 행사를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행사에는 금융회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유관기관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를 듣고 함께 인사를 나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글로벌 IB, 올 중 증시 20% 상승 전망

≫ 1면 ‘2023 차이나 기상도’서 계속

◆ 올해 반등 기대감 ‘술술’…상고하저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증시가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을 클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대유행에도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이유에서다.

하나증권 김경환 연구원은 “올해 중국 변화의 핵심은 지난 2년간 경기와 주가 상단을 제한했던 방역과 부동산 침체를 동반 탈피한다는 것”이라며 “과감한 리오프닝이 소비, 서비스, 부동산 등 내수 경기에 불어날 선순환 효과는 당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부양책이 쏟아질 상반기에 증시 반등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최대의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및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당장 3월초에 예정돼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올해 중국 증시가 최고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제시했다.

골드만삭스는 “호텔과 식음료, 엔터테인먼트 등 소비나 서비스 부문이 이번 반등의 가장 큰 수혜자”라며 “해당 기업들은 올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미 기자 smahn1@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300억弗 ‘역대최대’

산업부, 2022년 FDI 304.5억弗

지난해 연간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처음으로 30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한 가운데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투자가 증가하며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FDI는 신고 기준 304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최근 FDI는 2018년 269억달러에서 2019년 233억3000만달러, 2020년 207억5000만달러로 감소하다, 2021년 295억1000만달러로 증가로 전환 이후 지난 해까지 2년 연속 증가했다. 최근 5년(2018년~2022년) 평균 FDI는 261억9000만달러 수준이다.

도착 기준은 180억3000만달러(-3.1%)를 기록했으나 전년(186.0억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건수 역시 신고 기준 3463건으로

12.1% 증가했고, 도착 기준으로 2325건으로 12.4%를 기록,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공장건설 등 신규 투자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형 투자가 금액(+23.3%)·건수(+14.8%) 모두 증가하며, 투자와 고용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외투 지원제도 강화 및 규제 혁신, 정상외교 및 국가간 경제협력 행사 등을 계기로 추진한 적극적 IR 등이 최대실적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